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브라질 카시아스 도 술-베타니아 공동체에서
오늘, 2025 년 7 월 1 일 11 시 20 분(현지시간)
그라시오사, 마리아 파티마 코스텔라 수녀님이
(GRACIOSA, Sr M. FATIMA COSTELLA)

90 세 (65 년간의 수도생활)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선하심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파티마 수녀님이 빠스또렐라로서의 삶과 단순함과 기쁨으로 사목 열정을 증거하고, 오늘 평온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선교사적 마음에 대해 시편 저자와 함께 선한 목자께 찬양을 올립니다.

그라시오사는 1934 년 9 월 10 일 브라질 리오 그란데 도 술 베라노폴리스에서 태어나 1934 년 10 월 20 일 베라노폴리스/RS 의 성 루이스 곤자가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6 년 12 월 7 일 테세이라 레구아 - 카시아스 도 술에서 수녀회에 입회하여 알바노 라치알레(RM)의 모원에서 수련을 받기 위하여 이탈리아로 파견되어 1958 년 8 월까지 머물렀고, 1958 년 12 월 7 일 입수련하여 알바노 라치알레에서 1959 년 12 월 8 일 마리아 파티마라는 이름으로 첫 서원을 하고, 첫 서원 후 이탈리아에 남아서 프레사노 디 라비스(TN) 공동체로 파견되었습니다.

1963 년 파티마 수녀는 라틴 아메리카에 진출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파티마 수녀는 레오니아 보이토 수녀, 테레시나 폰타닐리 수녀, 다비다 세르보 수녀와 함께 1964 년 1 월 27 일 콜롬비아, 특히 성 요셉의 이름을 딴 쿠쿠타시 대성당에 수녀회가 진출하여 첫번째로 파견된 네 명의 선교사 수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12 월 8 일, 파티마 수녀는 다비다 세르보 수녀와 함께 쿠쿠타의 성 바오로의 딸 성당에서 종신 서원을 했습니다. 마드레 셸리나 수녀님이 서원을 받아들였고 레오니아 보이토 수녀와 유지니아 미아나 수녀가 증인을 셧었습니다.

1978 년 베네수엘라 아라우레로 전임되어 그곳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83 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아파리시온 데 오스피노로 전임되어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며 주로 가정 사목에 전념했습니다. 약 23 년간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한 파티마 수녀님은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브라질의 카시아스 도 솔로 돌아왔습니다.

파티마 수녀님은 단순하고 관대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유쾌한 수녀로 묘사됩니다. 수녀님은 선교 정신을 몸소 실천했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자기 헌신의 삶을 살았으며, 하느님 백성에 대한 큰 사랑으로 사명을 실천했고, 교회를 위한 성소를 가꾸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브라질로 돌아온 파티마 수녀님은 카시아스 도 솔에서 받은 환영을 단순하고 감사하게 묘사하며 1987 년 게틀리오 바르가스(RS), 1988 년 베라 크루즈 두 오에스테(PR), 1990 년 게틀리오 바르가스(RS) 공동체에서 주로 사목의 대리인 양성 사도직을 지속했습니다. 1993 년 상반기에는 우루과이 페이산두에서 설립을 준비했고, 그곳에서 약 12 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2006 년에는 브라질의 카시아스 도 솔로 돌아와 다음의 공동체에서 사도직 계속했습니다: 2006 년 콘솔라시옹(RS), 2008 년 산타나 도 리브라멘토(RS), 2010 년 페이산두-우루과이에 돌아와서 2012 년 카넬라(RS), 2016 년 캄포 벨루 도 솔(SC)에서 2021 년까지 머물렀습니다.

파티마 수녀님은 2022 년부터 베다니아 공동체에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서 매우 약한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사도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도로 봉헌하며 살았습니다. 그 동안 파티마 수녀를 헌신적이고 관대하게 보살피며 필요한 모든 보살핌을 제공한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녀님들은 이렇게 수녀님을 증언합니다. 파티마 수녀님은 왕국과 성소를 위해 사랑으로 주어진 삶... 선한 목자 마리아의 시선과 보호 아래 선한 목자 예수님과 친교 속에서 깨달은 성소... 파티마 수녀(그라시오사)님은 콜롬비아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살면서 선교적 차원이 강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수녀님은 수녀회를 매우 사랑했고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관대하고 자신을 내어주며, 창의적이었으며 다양한 육체노동을 통해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수녀는 소통이 원활했고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티마 수녀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백성을 섬기라는 부르심에 충실한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녀님은 우리에게 선교사의 본보기이자 즐겁고 관대한 봉사의 모범을 남기셨고, 저는 항상 수녀님의 단순하고 환대하며 즐거운 태도를 존경해 왔습니다. 수녀님은 항상 웃는 얼굴로 모든 사람을 매료시키는 기도하는 수녀님이었습니다. 수녀님께서 수녀님들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수녀님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수도 생활과 성소에 대한 수녀님의 사랑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수녀님의 단순한 태도, 세심함, 온화함, 기도의 정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수녀님의 환대의 몸짓은 놀라웠습니다. 수녀님은 알고 있었고 출발할 준비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티마 수녀님의 삶과 선교 사목자로서의 성소를 선물로 주신 선한 목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드리며,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게 될 선교가 선한 목자의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수녀님의 전구를 청합니다.

총 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로마, 2025. 7. 1

성 아론